눈에 띄는 박사학위청구논문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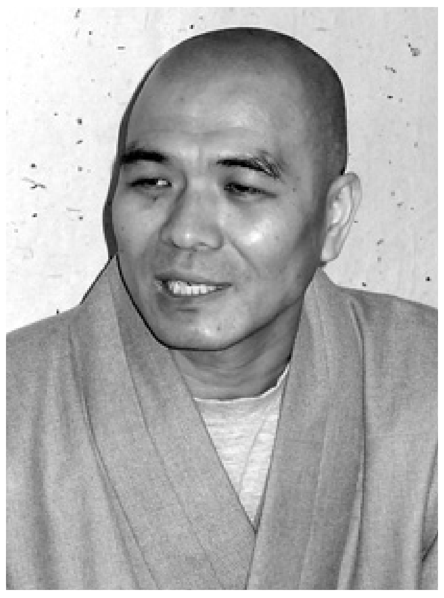
중앙승가대 진관 · 퇴휴 스님 동국대 하춘생 · 이성운 등

2012년 2월 전국 대학에서 학위수여식이 개최된다. 그동안 연구 업적 등이 학위논문을 통해 세상에 소개되는 순간이기도 하다. 불교계에서도 동국대, 중앙승가대 등에서 출 · 재가자들이 불교학 발전을 위한 대들보 하나씩을 내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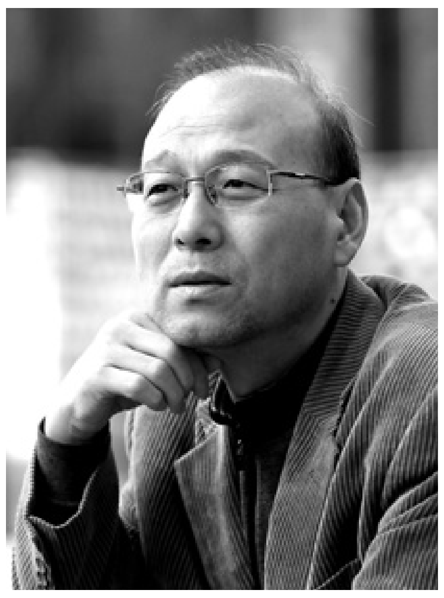
동국대에서는 하춘생 동방불교대 교수와 이성운 정우서적 대표가 박사학위를 받는다. 하춘생 교수는 '한국 근 · 현대 비구니의 문중형성과 그 의의'를 주제로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해 졸업을 앞두고 있다. 이성운 정우서적 대표도 '한국불교 의례체계 연구' 주제의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해 심사가 끝난 상태이다.

중앙승가대학에서는 진관 스님(불교인권위원장)과 퇴휴 스님(실천불교전국승가회 대표)이 각각 '동산의 불교계정화운동 연구'와 '한국 근현대 승가교육사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는다.

불교인권위원장 진관 스님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대표 퇴휴 스님

정우서적 이성운 대표


동방불교대 하춘생 교수

불교 정화운동 뿌리와 핵심 조명
"이승만 개입으로 정화운동 왜곡"

정화운동 최초로 조명

불교인권위원장 진관 스님은 현대 한국불교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정화운동을 동산 스님을 통해 조명했다.

진관 스님은 "정화운동은 해방 이후 현대 한국불교를 정초한 사건이다. 현재 불교계에 파생된 긍정적 · 부정적 상황들은 모두 정화운동에 기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진관 스님은 정화운동에서 근현대 선지식이던 용성의 제자이자 성철의 스승인 동산 스님의 역할이 컸다는데 주목했다. 동산 스님(1890~1965)은 범어사 · 해인사 조실 등을 지내며 조계종 종정을 역임한 선지식이다.

진관 스님은 "일제강점기 용성 · 만해 · 박한영 등의 임제종 운동이 정화운동의 뿌리라면 정화운동의 핵심은 민족 억압세력에 대한 저항, 곧 민족주의적 성격과 부처님 본래의 정신 수호에 근거했다"고 말했다.

스님은 "동산 스님의 정화운동도 순수한 종교내적 운동이자 교단정화운동인 동시에 민족운동의 성격을 지녔다"며 "동산 스님이 1953년 전국의 납자들에게 보낸 격문으로 불교 정화운동이 본격화됐다"고 진단했다.

월운 스님의 회고에 따르면 격문은 "오호라 슬프도다, 사자신충이 사진사자육인가 하여 여래 정법 중에 마군자생하여 여래 정법을 괴멸하는도다…"였다.

진관 스님은 "동산 스님의 정화운동은 한국불교계 내부 정화라는 순수한 목적이 있지만 이승만 대통령의 개입으로 세속적 권력에 의해 왜곡된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스님은 논문에서 정화운동의 역사적 사실을 초월해 불교계 내부의 갈등과 정치적 역동성을 함께 조명했다.

진관 스님은 "동산의 정화운동은 스승 용성의 건백서를 실천하려는 의지의 산물이었다"고 강조했다. 건백서는 용성 스님이 한국불교전통을 지키기 위해 스님들의 엄격한 계율생활을 촉구한 문서로, 스님은 두차례에 거쳐 건백서를 조선총독부에 제출했다.

근현대 승가교육사 분석
승가교육, 전통과 현대 사이 표류

조계종 교육사 최초로 정리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대표 퇴휴 스님의 논문 '한국 근현대 승가교육사 연구'는 스님이 조계종 교육부장을 지내며 가졌던 학문적 의문들을 해소한 최초의 박사학위 논문이다.

스님은 논문에서 근 · 현대 승가교육을 ▷근대기(1906~1910) ▷일제강점기 및 해방공간기(1910~1954) ▷조계종 성립 이후(1954~1994) ▷개혁종단 출범 이후(1994~현재)로 나누어 고찰했다.

퇴휴 스님은 근대 승가교육의 시작을 1906년 명진학교(現 동국대) 설립으로 보고, 시대순으로 조계종 교육제도의 변화를 정리해 효율적인 인재불사 계획 수립에 참고가 되도록 했다.

퇴휴 스님은 "1906년 명진학교 설립을 기점으로 볼 때 조계종은 100년 이상의 근대식(현대식) 승가교육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하지만 조계종 승가교육은 전통(강원)과 현대(동국대 · 중앙승가대)의 선택에서 표류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스님은 "이는 100년 전 승가에서 진행됐던 갈등이 답습되고 있는 것"이라며 "기본교육기관 일원화를 통해서만이 승가교육의 획기적 전환점이 마련된다"고 강조했다.

불교의례 체계 · 의미 연구
'예송의례' 불교 핵심 수행도량

불교의례 근원 최초 살펴

이성운 정우서적 대표는 조계종 의례위원회 위원이다.

이 대표의 논문 '한국불교 의례체계 연구'는 한국불교의 주요의례인 시식과 공양의례의 구조와 의미, 수용자의 인식 등을 통해 한국불교 주요의례 체계를 살핀 연구서이다. 특히, 한국불교의 시식의례를 봉선사 조실 월운 스님이 《일용의식수문기》에서 분류한 것과 달리 독창적인 구조로 재분류한 것은 괄목할 만한 부분이다. 이성운 대표는 시식의례를 ▷소청 ▷시식 ▷왕생으로 분류했다.

이 대표는 "법요집 · 의례집을 출판하면서 번역에 대한 의구심이 생겨 동국대 대학원 석 · 박사과정에서 불교의례를 전공하게 됐다"고 말했다.

현행 의례집 대로라면 인사를 올리고는 "이래서 인사했습니다"라고 뒤늦게 고하거나, 인사하고서는 "또 오세요"라고 말하는 등 뜻을 알고서는 순서를 그대로 둘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 대표는 "'나무'와 '귀의'가 구분 없이 사용되는 것도 문제이다"라고 지적했다.

'나무'는 '나무아미타불' 등 칭명이 뒤에 따라 특정 불보살의 원력과 내가 하나가 됨을 의미하고, '귀의'는 수계 등에 사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성운 대표의 논문은 '불교의례는 사상의 현재화이며 수행의 도량이며 교학의 보고'로 정리된다.

이 대표는 "한국불교의 시식 · 공양의례와 그것을 여법하게 봉행하기 위해 닦는 일상의 정근인 예송의례는 불교의 핵심수행을 실천하는 수행도량이며, 핵심적인 교학과 한국불교 사상을 담은 보고이다"라고 설명했다.

비구니 문중 첫 학술 조명
기자시절 비구니 기획 취재가 계기

한국 비구니 문중 처음 집대성

하춘생 교수의 '한국 근 · 현대 비구니의 문중형성과 그 의의'는 국내 비구니 문중의 첫 학술적 조명이다. 교계 기자출신으로는 첫 박사학위를 받는 점도 눈길을 끈다.

하 교수의 논문은 그동안 비구니계 일각에서 회자 · 소통되던 비구니승가의 문중 전체를 한곳으로 섭수해 정리한 결과물로 교단사적 의미와 가치가 크다.

학계에서는 이번 하춘생 교수의 연구물을 토대로 비구니 내지 비구니문중 연구에 천착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한국 비구니에 대한 관심과 분위기가 활성화 된 것은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로 2000년대 들어 본격화됐다.

당시 불교신문 기자였던 하 교수는 1991~1999년 '한국의 비구니' 제하의 기획기사를 연재하며 근현대기를 살다간 비구니고승들의 행장과 사상을 교계에 소개했다. 비구니 위상강화를 위한 역동의 역사가 그리 길지 않기도 하거니와, 하춘생 교수의 연재물은 당시대를 한국 비구니에 교계 관심이 모아지는데 일조했다.

이때부터 하 교수는 한국 비구니연구에 관심을 가졌다. 연재물을 토대로 하춘생 교수는 1998년과 2001년 《깨달음의 꽃》(1 · 2권)을 출간했다. 이 책들은 비구니계에서 '깨꽃'으로 통할 만큼 인기가 많았다. 비구니 위상 제고의 시대적 요청은 2006년 6월 전국비구니회가 '한국 비구니 수행전통에 대한 포럼'을 개최토록 이어졌다. 이 자료들은 단행본 《한국 비구니의 수행과 삶》(1 · 2권)로 발간됐다. 이어 2004년 한마음선원은 '동아시아의 불교전통에서 본 한국 비구니의 수행과 삶'을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일련의 비구니 위상 제고를 위한 사업마다 하춘생 교수의 '깨꽃'이 나름 계기를 제공해줬다는 평가가 끊이지 않았다.

하 교수는 "비구니에 천착하게 된 정황들을 스스로 소명으로 받아들여 전공학문으로 삼게 됐다. 당시 동료기자들과 '비구니문중'까지는 내가 정리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금번 학위논문으로 그 약속을 지키게 돼 매우 다행스럽고 기쁘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cetana@hyunbul.com

'한국의 사지' 부산 · 광주 전남 · 제주편

불교문화재硏, '한국사지총람' 일부 정리 · 발간

불교문화재연구소(소장 미등)는 문화재청(청장 김찬)과 부산 · 광주 · 전남 · 제주지역의 폐사지(廢寺址)에 관련 문헌조사와 정밀현황조사를 시행해 《한국의 사지(寺址) - 부산 · 광주 · 전남 · 제주편》을 발간했다.

책은 지난해 발간한 《한국사지총람》에 수록된 부산 · 광주 · 전남 · 제주지역 폐사지 672개소를 대상으로 사역(寺域) 확인, 식생(植生), 유구 · 유물 수습, GPS(위성위치 추적시스템) 좌표 기록 등 사지 관련 정보를 정리한 것이다.

특히, 사지 연구에 있어 중요한 기와편에 대해서는 3차원 스캔 작업을 통해 그 이미지를 탁본처리 후 수록했고, 중요문화재가 남아 있는 사지는 현재의 주변 환경을 기록한다는 차원에서 항공촬영을 해 보고서에 담았다.

《한국의 사지》는 옛 문헌과 각종 연구자료 등의 성과물을 반영해 흩어져 있는 사지에 관한 각종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 정리함으로써 앞으로 사지의 보존 · 관리방안 마련 등 정책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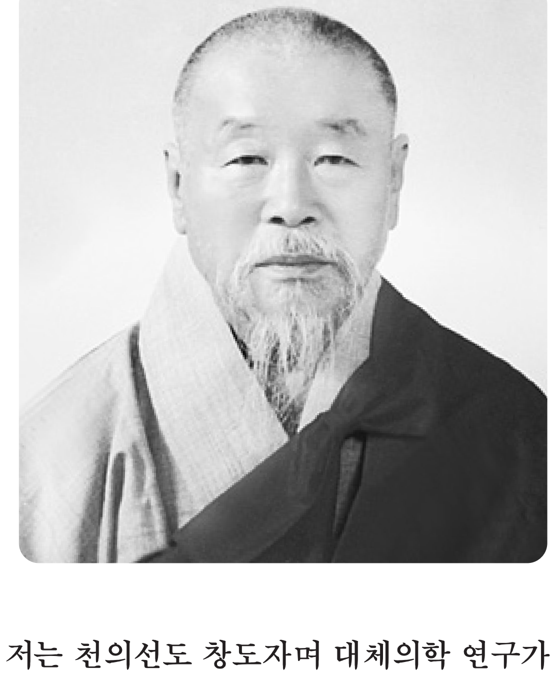
2010~2014년 전국의 폐사지에 대한 종합적인 현황조사를 추진하게 되는 폐사지 학술 조사사업은 올해에도 대구 · 경북지역의 1410여 폐사지를 조사할 계획이다.

조동섭 기자

암환자를 위한 특별 메시지

천 의 선 도

대체의학 천하제일의 민중의술이란 책자를 만천하에 공개 하면서



저는 천의선도 창도자며 대체의학 연구가 삼봉 김영생 스님 입니다. 저는 13세부터 조부님 강요에 못이겨 육경신 정신수련에 입신해서 82세가 된 오늘까지도 인간은 나면서 가는날은 이미 정해졌다 하지만 사는동안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잠든듯이 가는길은 없을까하는 상염중에 1977년 음력 1월 15일 육경신 정신수련중에 천신의 계시를 받고 너무나 황당무게한것 같지만 천신의 메세지이니 믿고 내 주변에 말기암 환자 몇분에게 은용해수를 육각수로 만들어 복용시켰더니 3,4개월이 지나 몸이 편안하다 하기에 병원진찰을 받아보니 암이 정상으로 회복되었다 하지 않습니까. 소문에 따라 저를 찾아온 암환자가 180여명이 넘는데 한사람도 죽지 않고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목디스크, 허리디스크 전립선, 요실금으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천의선도를 전수시키고, 일주일에 1번씩 4,5차례 기를 넣어 드렸더니 정상으로 회복된 분이 3000여명이 넘는데 재발된분이 한분도 없습니다.

나는 한국의 민중의술을 검증받기 위해 미국 오하이오주 주지사님의 초청을 받고 1998년 7월초에 미국에가서 오하이오주 주립대학 병원에가서 담당의사들의 병증세에 대한 설명을 들어가면서 환자들에게 의료봉사 활동을 5일간 했는데 휠체어에 몸을 의지하고 나온 환자가 오후에 공원 산책을 혼자서 하고 돌아왔다고 담당의사가 신화같은 기적이라고 함성을 지르며 천의선도 치료법을 전수받았습니다.

7월 14일에는 오하요주 주지사님이 한국의 민중의술이 세계에 으뜸이라고 찬사를 하시며 감사패를 주셨고, 17일에는 콜럼버스 시장님이 명예시민장도 주셨습니다. 2011년 월드코리아에서 세계속의 한국인 자랑스런 민중의술 대체의학 부문 대상도 받았습니다 만은 제 나이가 82세, 나의 의식이 흐려지는 것을 몸소 느끼면서 이세상에 전무후무한 천하제일의 천의(天醫) 하늘이 준 의술을 묻어두고 갈순없어 이 세상에 공개해서 한가정에 한사람씩 천하제일의 명의가 있다면 건강한 가정에 행복한 사회가 이루어지리라 생각되어 일반에 공개하면서 천의선도 대체의학을 전수받을 분 기다립니다. 나의 안내문에 의심이 나거든 강동구 천호2동 333-45 전화 02-568-4955 대가연 통증의원 원장 의학박사 심요택 박사님을 만나 보십시오. 심박사님은 암 환자를 대체의학의 자연요법을 체험해 보시고 신화같은 기적이라고 감탄하시며 시행하고 계신 분입니다.

일반인이 자기 가정을 돌보기 위해 천의선도 대체의학을 전수받는 분에게는 일체 전수비를 받지 않습니다.

책값 50만원에 필요하면 은용해기 35만원, 배선침 100개 내지 150개 구입하면 준비완료.

천하제일의 명의가 되는데 소요시간은 천의선도를 전수 받고 실습시간 육각수를 만드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 환신 받는데 10분, 5시간이면 넉넉하고 암환자를 치료 하려면 육경신수련 60일에 하루씩 6회 참석 수련하시면 됩니다. (오방신장의 관습을 벗어나기 위해서 입니다.) 건강을 원하거든 행복을 원하거든 천의선도를 전수받으십시요.

천의선도 태종선사
삼봉 김영생 스님 합장배래

주소 : 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 5동 483-39 삼용빌딩 403호

연락전화 : 010 - 4933 - 4528